

이 임 사 (離任辭)

존경하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12대 회장을 맡아온 이준수입니다. 이제 7월말-8월초를 기점으로 회장직을 남상욱 교수님께 넘겨드리고자 이임 인사를 올립니다.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우리 학회 회원 한분한분께 감사드리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운영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소아신경학을 중심으로 여러 질환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학회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신경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하여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회는 학회 임원들의 노고와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향후 큰 도약을 위한 초석을 지속적으로 놓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개최되었던 춘계, 추계 정기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외국의 저명한 석학과 우수한 국내 연자들의 알찬 강의와 더불어 회원님들의 참여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대한소아신경학회지의 국제 학회지로의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학회의 영문 학회지 'Annals of Child Neurology'가 2019년부터 성공적으로 발간되었고, 올해 드디어 정식으로 SCOPUS에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준비하였던 유관 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도 결실을 맺어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COVID-19 사태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하였던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와의 공동심포지엄이 취소되고, 대구에서 개최 예정이던 춘계 정기학술대회가 취소되면서 학회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차기 회장단 선임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고, 온라인 임시총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 것은 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회가 적절하게 대처한 저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COVID-19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차기 남상욱 회장님과 새로운 집행부가 이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학회로 더 큰 발전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학회의 모든 회원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진행형인 COVID-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회장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제12대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장
이 준 수 배상